〈제10호〉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15)
98교회표어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18~21)
발행 : 출판부 (본 선교지는 두 달마다 발행됩니다) 1998년 1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재철 목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라" (사43: 18r21)

믿음이란? 광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막 속에서,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곧 터질 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펼쳐진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오늘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을 때,
새해는 비로소 새해가 될 것입니다.

戊寅年 小考

이재원 장로

시무장로 직을 마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크나큰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저 감읍할 따름입니다.

생의 큰 획을 긋는 이 시점, 지난 10년간 주님의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게"겸손하라, 더욱 겸손하라, 겸손만이 구원의 그릇이다"라고 저의 아픈 곳을 찌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근 각처에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묶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로서는 드물게 헌금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와 구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길과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신 주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참 뜻을 깨닫고 서로서로가 이해와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갔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 하나가 되었을 때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많은 주님의 사역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여고 강당 신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의 사역이었기에 더욱 기쁘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작년 8월 착공하여 올 7월에 완공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마음 뿌듯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모두가 "내 자리는 내 손으로"라는 참여의식 속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이재철 목사님의 퇴임과 더불어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한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면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컴퓨터

정용섭 집사

요즘은 컴퓨터가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고 또 컴퓨터를 모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되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고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었다. 그 당시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컴퓨터는 조작, 즉 프로그램을 짜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언어를 써서 일일이 그 작동을 순서에 입각하여 프로그램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후 더 발달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부분은 마이크로 코드(MICRO CODE)화 되어 컴퓨터 자체의 자기진단(Self Diagnose)이나 기본 작동은 기계가 알아서 하게 되었고 그 위에 운용체계(Operating System: DOS나 WINDOW 따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더 높은 수준의 기은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운용체계는 어디까지나 컴퓨터 자체의 관리자일 뿐 그것이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다.

컴퓨터가 컴퓨터일 수 있는 것은 그 운용체계에 어떤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은행의 계정계 프로그램이 돌면 은행원으로서, 항공사의 승객예약 시스템이 돌면 항공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80년대 초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부터 컴퓨터는 모든 사람이 가깝게 접하게 되었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도 마이크로 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운용체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구도 등은 대동소이하다. 이 PC가 개인 비서로서, 사무용으로, 가정용으로, 군사용으로, 학문 및 학습용으로 잘 쓰이는가 하면 그저 단순한 오락용이나 불순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같은 성능의 마이크로 코드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그 용도는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구도는 하나님이 만든 컴퓨터, 즉 우리의 뇌와 흡사하다. 인간의 뇌에도 마이크로 코드에 해당하는 원뇌가 있다. 이 원뇌는 아주 동물적 본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적 본능을 수행한다. 먹는 것, 이성을 찾는 것, 집단 이루기, 적을 구분하여 싸우기,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기능은 하등 동물에게도 있다. 이 원뇌를 둘러 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뇌변연계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운용체계와 거의 흡사하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든가, 소리 또는 언어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등의 지적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뇌뿐 아니라 말·개·코끼리 등 고등동물의 뇌에도 인간의 것에 비해 성능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다. 이 대뇌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대뇌신피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크게 운동야, 감각야, 전두연합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다. 그 중에서 전두연합야가 가장 진보된 뇌인데 인간이 비로소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 전두연합야의 활동에 달려 있다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사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소망을 가질 것인가? 이 뇌의 발달과 쓰임으로 인간은 지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창조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전두연합야가 플러스 발상을 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뇌 속에서 β-엔도르핀이 속해 있는 모르핀을 한없이 분비하여 더욱 즐거운 마음은 물론 모든 병으로부터 강한 면역을 갖게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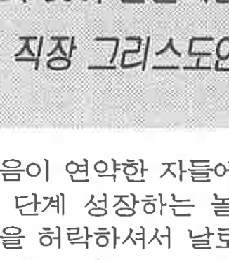
욕심을 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이루면 한없는 기쁨은 물론, 건강과 장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컴퓨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하찮은 오락기로써 작동하다가 허망한 욕망으로 인해 멸망해 버릴 것인가? 또는 자아실현을 통하여 큰 즐거움을 얻고 창조자를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컴퓨터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갈파한 바울이야말로 만능의 Application을 그의 전두연합야가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실로 놀라운 자아실현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함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이 고백이야말로 자유로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컴퓨터는 자체가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이며 이런 컴퓨터를 오래 보전하려는 것은 창조자의 뜻이 아니겠는가?

직장 그리스도인의 비전



김창안 집사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이며 나는"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을 깨닫고 직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직장생활 가운데서 절반 이상을 남들과 같이 할일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오직 나의 자존심과 출세를 위해 힘쓰며 혼자만 깨끗하고 정직한 척하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만족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때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거듭남의 체험과 영생에의 확신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기독신우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 직장그리스도인은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여
> 직장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 헌신하는 것이 직장 그리스도인의 VISION입니다.

저희 직장 기독신우회에서는 월례 예배,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신앙수련회 중국 북경 신학생 후원, 창립기념 음악예배, 전직원초청 선교의 밤 개최 및 금융기관연합선교회, 직장선교연합회의 연합 모임 참여 등으로 직장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고 실망이 커서 주저 앉고 싶을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를 위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새벽으로 밤으로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다시 새 힘을 공급받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제10회'전직원초청 선교의 밤,을 위하여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기도와 여러번에 걸친 준비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내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뻔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하나님은 주택은행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은혜 가운데에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예비하여 두신 심령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셔서 날로 복음화되어 가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여 직장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직장 그리스도인의 VISION입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위에서 인정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변화된 모습을 동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행실과 경건한 자세를 갖고 직장생활 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를 모여서 힘을 기르는'모이는 교회,라 한다면 일터는 흩어져서 영적전투를 벌이는'흩어지는 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하루의 활동이 시간 중 가상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의 삶이야 말로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삶의 중심지인 직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일신자(Sunday christian)를 양산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회 중심의 신앙활동을 삶의 중심지인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확산시켜야 할 때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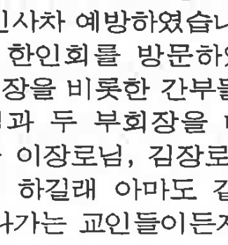
직장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이 일터에 보내신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고, 주위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 막1:17)

직장그리스도인은'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여
직장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직장 그리스도인의 VISION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김연수 집사

지난 10월 재직하고 있는 단체의 캐나다 서부지회를 창설하기 위해 밴쿠버에 갔을 때 만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해외 어느 곳이든 교민사회내 단체를 조직하고 그 지도자를 선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년여 전 미국의 어느 주요 도시에 지회를 창설하기 위해 그곳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선임하여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그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간의 주도권 싸움과 불신으로 아직도 지회 창설의 결실을 못보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교민사회의 고질적인 분당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도자로 나선 사람의 덕망에도 지회 창설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도자를 반대하여 내가 지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회창설을 성공시킨 밴쿠버 교민사회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곳에도 한 장로님께 지회 창설을 주도하도록 하였는데 다른 교회에 소속된 장로님들이신 두분의 지도자들과 잘 협력하여 불과 1년 안에 훌륭한 지회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 지회장을 맡으신 이장로님은 20여년 전 그곳에 교민을 위한 신용금융조합을 창립하여 지금은 8천만달러의 수신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민사회의 상호협동, 자립정신을 부양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창립자로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1996년에는 세계 각국 교민사회의 기관들 중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은 그곳 교민 사회의 성공한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26일 지회 창설식을 앞두고 지회장을 맡게 될 이사장님과 부지회장을 맡을 김, 정장로님 등 지회 간부들과 함께 그곳 한인회, 노인회, 총영사관을 각각 인사차 예방하였습니다.

먼저 한인회를 방문하였는데 한인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사장님과 두 부회장을 대화중 호칭을 이장로님, 김장로님, 정장로님 하길래 아마도 같은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간부들도 같은 교회식구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회에서 공식 모임을 가질 때 잘 아는 교인이 아니면 교회 직분으로 호칭하는 것보다 회장님, 사장님 등 사회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통념이고 자연스런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총영사관을 예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총영사 등 간부들이 똑같이 장로님으로 호칭하여 이들 모두가 아주 규모가 큰 한인교회에 속한 같은 교인이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못내 미심쩍었습니다. 그후 다른 교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한인회장과 노인회장들은 아예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궁금해 여러 교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한마디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되기보다는 더 우뚝 서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인들도 그분들을 사회 직함으로 부르기보다는 장로님으로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이분들의 존경 받는 삶의 내용을 일일이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이장로님은 신용조합의 이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일,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등 선교와 구제사업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함이 그분의 모습에서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빛과 향기를 발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신입서적 안내

생각하는 웃음 시리즈
예수님은 못말려!
김진국 지음, 미래사, 값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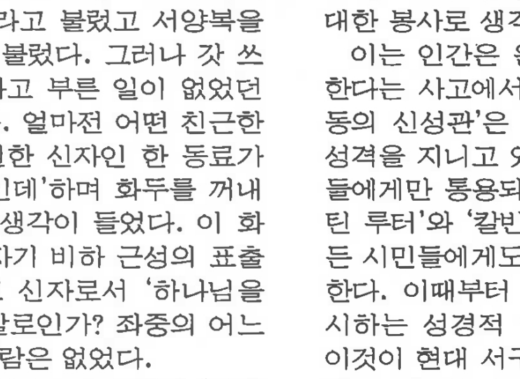
도시 그늘 속 사랑이야기
공기밥 열여섯 개
이신정 지음, 한세, 값 5,000원

삶으로 드리는 제사
일과 예배
벤 패터슨 지음, IVP , 값 5,000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지음, 홍성사, 값 6,000원

1998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
정장목 지음, 홍성사, 값 17,000원

삼일교인



조남홍 집사

서양에는'삼일교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일년에 세 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평생 동안 단 세 번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들을 빗대어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일년에 세 번은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때이고 평생에 세 번은 유아세례 때와 결혼식 그리고 죽어서 장례식 때라 한다. 이는 비록 우스개로 꾸며낸 말처럼 들리지만 서양에 가보면 실제로 이러한 삼일교인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들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밴 생활문화요 인간으로써 도리라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삼일교회인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는 서구 기독교의 쇠락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 비록 그들의 피와 혼에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 할 일 또한 아닐 것 같다.'쟁이'라는 접미어는 소수 그룹을 홀대하여 쓰이는 경우도 있기에 그러하다. 옛날 바지에 저고리 입고 갓 쓰고 다니던 시절에 뜨문뜨문 존재했던 안경 쓴 이를 안경쟁이라고 불렀고 서양복을 입은 사람을 양복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갓 쓰고 다니는 사람을 갓쟁이라고 부른 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리 생각된다. 얼마전 어떤 친근한 사이의 모임에서 아주 독실한 신자인 한 동료가 '나 예수쟁이 입장에서 말인데'하며 화두를 꺼내는 것을 보고 잠시 희한한 생각이 들었다. 이 화두는 소수 그룹의 잠재적 자기 비하 근성의 표출인가? 아니면 진정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감'의 발로인가? 좌중의 어느 누구도 전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서양에서의 삼일교인의 상대적 보편화와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오묘함은 알 길이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서양 사회의 노화와 쇠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양은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21세기를 태평양 연안의 동양시대라고 예견하는 석학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무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극단적 예를 볼수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 사회가 물질 문명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기독교 정신과의 접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역사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간의 고도 성장이 얼마만큼이나 기독교 정신과 접목되어 왔는가는 한번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 생각된다. 우리 경제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경이적인 고속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보리고개' 탈피, 빈곤 탈피라고 하는 원초적 동기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규율이 그 원동력이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리고개'라고 하는 빈곤은 사라지고 유교적 규율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고 '민주화'란장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할 근원적이고 정신적 동기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교회'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본다. 교통 정리에서 주방에 이르기까지 이들 성도들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고 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서양 중세 수도원의 승려들을 연상한다. 그들은 '근로'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여 신성시하였다.

이는 인간은 원죄를 지은 대가로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의 신성관'은 수도원 안에서만 누리는 특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부 승려들에게만 통용되었던 제한적 노동신성관이 '마르틴 루터'와 '칼빈'에 의한 종교 개혁으로 일반 모든 시민들에게도 확산 적용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성경적 해석이 일반화, 보편화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 경제 번영의 이념적 초석이 되었으며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참으로 어렵게 지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노동 이념의 공백을 기독교 정신으로 메워주는 일이라 느껴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인들이 깊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소견에 대해 이견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근로 의식과 기독교 정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정신여고 강당 공사현장 방문

봉사부에서는 11월 29일 정신여고 강당 신축 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봉사부원과 여러 교우들이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날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교우들이 이러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성에 대해 결의하였다.

전도자 시상

교회에서는 1년간 10명이상 전도하신 교우님께 상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2가족뿐이었으나 98년도에는 더많은 가족이 전도에 힘을 써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동참합시다. 조원호 집사·강경원 집사(13명), 황규완 집사·이연자 집사(11명).

〈환태평양 형제교회 안내〉

중국 천진 한인교회
☎8622-361-7286
러시아 블라가웨신스크 주님의 교회
김만조 선교사 ☎7-4212-372509
미국 남가주 주님의 교회
변용진 목사 ☎(310)926-6799
코스타리카 시온교회
금상호 목사 ☎506-236-7949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이동규 목사 ☎649-630-5570
캄보디아 국제 기아대책기구
이성민 선교사 ☎(855)23-362145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
Chun Sik Bang (Soo)
FAX 8315255
호주 체스우드 한인 연합선교회
한경훈 목사 ☎02-9415-3845

막바지와 막바지
(Simple Life)

이충길 집사

새해에는
주님을 위하여

온갖 허례허식을 벗어 버리고,
막바지를 입게 하소서.

좀더 나이 먹기 전에
막바지를 입게 하소서.

막바지를 입고,
봉사의 막바지까지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의 IMF를 졸업하고
막바지 가서 면류관 쓰게 하소서.

교 우 동 정

〈이사〉
▲이윤철A·조병희A: 서초구 우면동 대림A 103-1405 ☎3462-5435
▲류남석·임연옥: 송파구 송파동 91-18 ☎421-0323〈이사〉
▲진대오·이은영집사: 송파구 가락2동 프라자A 5-403 ☎408-9028
▲동일규·민욱선S :고양시 풍동 성원A 103-1405 ☎0344-902-8392
▲이민우·정영숙S: 안산시 성포동 예술인A 13-1705 ☎0345-411-2780
▲김동선·한명숙S: 일산 마두동 백마마을 212-1503 ☎0344-901-3375
▲윤명숙D: 시흥시 정왕동 영남6차A 601-706 ☎0345-497-3291
▲박창근·김소영: 송파구 신천동 한빛플라자 1606 ☎419-8935
▲이수영S: 송파구 방이1동 코오롱A 105-410 ☎202-1171
▲이익매·성기자D: 강남구 대치동 미도A 105-1404
▲이시혁·박인순S: 강남구 도곡2동 럭키A 2-802
▲조순자: 광진구 구의3동 현대프라임A 3-201
▲엄애경: 의정부시 신곡동 추동A 103-1003 ☎0351-846-8659
▲김호정·김미애집사: 분당 서현동 효자촌 대명빌라 102-103 ☎0342-702-6471
▲문유진·김문영집사: 경기 김포읍 감정리 시영A 101-904
▲최낙경·정영하집사: 송파구 송파동 반도A 106-609
▲한상곤·윤신옥집사: 남양주시 금곡동 LG아파트
▲정수웅·이인숙집사: 양재동 삼익빌라

〈개업〉
▲권헌일E·사옥선D: 홍제동 E-land 의류점 '홍제란쯔점' '구의 쉐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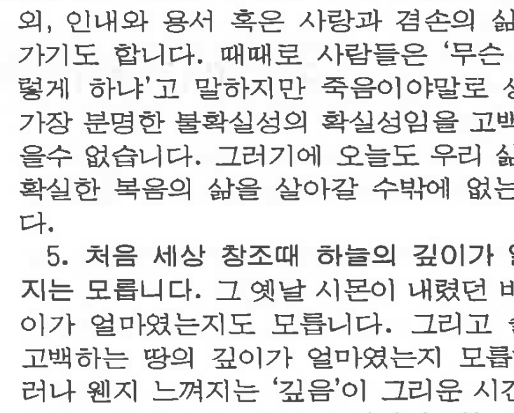
〈소천〉
▲강용호D: 부친 소천: 11.10

〈출산〉
▲문창목집사·김은정권사 외손녀

〈결혼〉
▲김태준·배경란집사: 장남 김종한(11.15)
▲박재만·이승아: 10.25
▲김영조집사: 차녀 상은(12.2)
▲양태홍·김양자권사: 장녀 혜림(11.29)
▲이호경·권지현집사: 12.13
▲임해연성도: 11.1

〈합격〉
▲김영심자매: 97년 사법고시 합격

안녕하세요 이동규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1. 당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운 목소리, 보고싶은 얼굴입니다. 고사(枯死)한 나무 같은 시절(時節)에 그래도 그리움과 보고픔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이동규입니다.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못하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왔지만 통화를 못하는 것도 미안합니다. 메모를 남겨주시면 아쉬움과 미안함은 더 큰 만남의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큰 바다 너머로 이사하신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었습니다. 웬지 마음 푸근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먼 바다 너머로 이사하신 한 성도님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 바다 만큼이나 멀리 있음이 느껴집니다. 사람들 모두가 먼 바다를 뛰어넘어 나눌수 있다면, 우리들 모두가 좁은 강을 뛰어 건너 만날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녕 믿음 아니겠습니까?

3. 오랜만에 동기회보를 받았습니다. 가나다순으로 쭉 늘어서 있는 동기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전해오는 마음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보고싶은 이름, 넘어가는 이름, 한날, 한시, 한선생님 밑에서 배운 동기인데도 그렇게 마음 다름을 보며 웬지 미안해 집니다. 어쩌면 나 역시도 보고싶은 이름, 넘어가는 이름에 끼어있을 것을 생각하니 말없이 웃음져 집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이름은 지워지겠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예수, 그 생명의 이름속에 곱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생각하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4. 저녁식사후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앨범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희미한 사진 속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분늑, '이중에 죽은 놈들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때때로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만 때론 그것이 사실일 수박에 없어 단절과 소외, 인내와 용서 혹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생(生)의 가장 분명한 불확실성의 확실성임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박에 없는 것입니다.

5. 처음 세상 창조때 하늘의 깊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그 옛날 시몬이 내렸던 바다의 깊이가 얼마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땅의 깊이가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웬지 느껴지는 '깊음'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비록, 땅위를 걷고 있지만 날마다 하늘의 깊음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깊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당신의 깊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8면에서 계속〉

인사를 대신해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중남미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느낌, 관찰, 이야기는 다음의 책에 대부분 들어 있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 이분의 시각이 이재철 목사님이 보시는 시각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더욱 공감과 힌트를 받았음)

회사의 이야기지만, 회사라는 조직 대신 교회나 교포 사회를 대입시켜서 읽고 생각해도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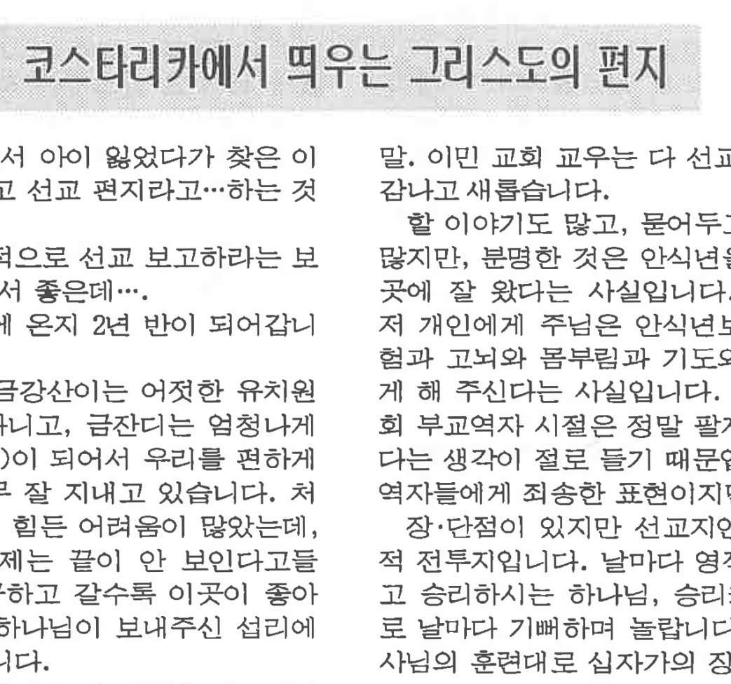
'시장은 넓고, 팔 물건은 없다'/서재경 지음/김영사 출판

그럼 언제나 주님안에서 강건하십시오.(어느 선교사는 선교 편지에 강건을 강간으로 잘못 표기해 우습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이런 선교지의 미묘하고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좋은 지혜를 주곤 합니다) 그럼 20,000.

가장 자연스런 자연이 있는 중미의 천국(?) 코스타리카에서.

가끔씩 주님의 교회의 모든 분들과 모든 일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잘 살고 있는,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괴상하고도 재미있고도 뼈가 있는 편지를 선교지에서 조심스럽게 띄우는 금상호 드림. 97년11월7일 Costa Rica에서

코스타리카에서 띄우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시 18:1)로 주님안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당분간 쏘로우처럼, 좀머 씨처럼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원고를 써야 한다고 팩스를 보내셨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건데, 그럴수 없는 인연도 있고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교우들께 안부전할 기회로 알아 망설이다가 펜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쓸 수 있는 이야기는 현지인 선교나 이야기보다는 한인교회 이야기, 교포 이야기이기 때문에 묘한 부분이 많아 어렵습니다. 아직은 공적으로 말하기 힘든, 해서는 안되는, 정말 깊은 사연을 이야기하기엔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러나 이런 면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형식상의 편지는 보고를 위한 보고, 인사나 겉치레에 불과하기에?(이곳의 어느 선교사는 쓸 이야기나 일이 없어서 아이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쓰고 선교 편지라고…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기적으로 선교 보고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없어서 좋은데….

아무튼 저희가 이곳에 온지 2년 반이 되어갑니다.

유모차에 실려왔던 금강산이는 어엿한 유치원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금잔디는 엄청나게 먹고 커서 아이 어른(?)이 되어서 우리를 편하게 하고, 저희 부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일년 동안은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실 이민 교회의 문제는 끝이 안 보인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곳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섭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특히 지난번 이재철 목사님과 양동훈 장로님의 방문은 새로운 기회와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적응이란 길들여지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길들여져서 적응도, 이민목회자의 모양새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틀이 잡혔다고 생각됩니다.(이럴때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세계적이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교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우들의 마음과 관계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가정, 40여명의 교우들이 몸부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은 목사인 저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들같이 느껴져서 목사인 제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교회는 여러모로 모양새와 자리를 잡아가고, 교회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도 구체화되어가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은 많이 보이는데, 일군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이 이곳의 절대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말, 그러나 돈 없이는 선교가 어렵다는 말. 선교지에서 사는 것 만으로도 선교라는 말. 교포는 모두 민간 외교관이라는 말. 이민 교회 교우는 다 선교사라는 말…등이 실감나고 새롭습니다.

할 이야기도 많고, 묻어두고 해서는 안될 말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안식년을 포기하고 제가 이곳에 잘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 개인에게 주님은 안식년보다 더 아름다운 경험과 고뇌와 몸부림과 기도와 눈물과 사랑을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 시절은 정말 팔자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입니다.(지금의 부교역자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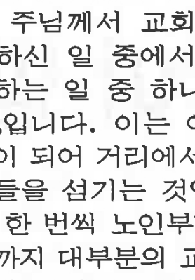
장·단점이 있지만 선교지인 이곳은 정말로 영적 전투지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놀랍니다. 이제는 이재철 목사님의 훈련대로 십자가의 장군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니까(?)….

건방진(?), 혹은 행간에 얽힌 압축된 진실들을 한계진 지면에 써 보았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늘 가슴에 묻어두는 이야기는 더 진실에 가깝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곳에 오시면 가능합니다. 이야기로, 느낌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관광으로, 여러모로.

〈7면에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변용진 목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97년도 한 해를'하나님을 믿으라,(막 11:22)란 말씀을 표어로 삼아 전교인이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97년은 교회 내의 영적 성장과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로서 영어 예배부의 6구역과 한국어 예배부의 4구역을 조직케 해주심으로써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 성경공부와 사랑의 중보기도 및 교제를 지역별로 나누게 되었으며, 구역장들은 작은 목회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담임목사와 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하며 구역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새로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감동으로 전교인이 꼽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에 가졌던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2박 3일 동안 Pinecrest수양관에서 있었던 수련회는'사랑의 섬김,을 주제로 삼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모임,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고 많은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특히 감사한 일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몇분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주님께서 교회에 감당케 허락하신 일 중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 중 하나는'사랑의 식탁,입니다. 이는 여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노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분들이 모이는 교회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찬양팀이 찬양도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교회내 미용 봉사팀이 함께해 머리를 잘라주고 다듬어 주게 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한 일인지요. 지난 8월에는 남가주 지역의 Mid City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하여 성가합창제를 갖게 되었는데 저희 성가대가 특별찬양 순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어 예배부의 Praise Team과 한국어 예배부의 성가대가 함께 출연, 밴드팀과 성가대의 피아노 반주를 함께 드리며 가스펠을 편곡하여 어른 성가대와 청년 찬양팀이 하나가 되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특이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내년 행사에도 참여해 달라는 초청을 미리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 성경학교,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제자 훈련반의 활발한 활동, 갖가지 숨은 봉사, 성도간에 일어난 기도운동 등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돌아볼 때 감사드릴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년 98년도 표어는'세상에 선포하라,(딤후 4:2상)로 정해 주셨습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은'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내년 한해가 되기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교회의 내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늘 주님께 구하고 애쓰던 중 주변의 불신자들과 새로 보내 주셨던 새신자들에게 혹시 소홀하지 않았었나를 반성하며 우선 순위를 다시 정리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불을 전하는 일에 힘 쓸 것,을 다짐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중요성(막 8:36)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오는 2월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이 남선교회의 청년선교회가 오는 1월 조직되는데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서울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힘을 늘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즐함울 10호를 출판하면서…

96년 8월 이재철 목사님의 발간사와 더불어 그동안 10호를 발간하면서 천경우집사, 이기숙 집사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2달에 1번씩 면을 채우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글을 실어서 교우님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는 독자보다도 편집에 참여한 출판부 부원들이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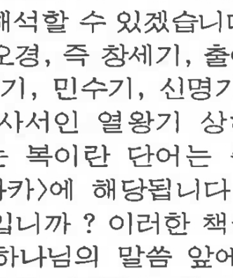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우님들이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보는 체험을 하시기를…

(11호부터는 새로운 출판부 부원의 봉사로 출판됩니다)

출판부장 조원호 집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성식 전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 인사를 기쁘게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 인사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복이란 단어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반가와 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구약에 나타난 복의 개념이 우리가 인사하며 주고 받는 복의 개념과 일치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의 성경적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약에서 복이란 단어가 포함된 모든 표현을 찾아보면 총 375 번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표현들은 히브리 원어상 세 개의 어근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빠락〉이라는 동사와 여기서 파생된 〈쁘라카〉란 명사입니다

둘째가 〈아솨르〉라는 동사와 여기서 파생된 〈에쉐르〉란 명사입니다.

셋째가 〈토브〉라는 명사와 여기서 파생된 〈야타브〉라는 동사입니다.

(1) 〈빠락〉이라는 동사의 일차적 의미는 '무릎 꿇다'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십사고 빌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므로 〈빠락〉에서 '축복하다'란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빠락〉의 명사형이 〈쁘라카〉란 복이 쓰인 곳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창 1:22, 28, 창 12:2, 3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바로 〈쁘라카〉의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주신 복도 〈쁘라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쁘라카〉의 복이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복이란 단어는 주로 이 〈쁘라카〉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 이러한 책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2) 〈에쉐르〉란 복이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 편입니다. 〈에쉐르〉의 동사형인 〈아솨르〉의 일차적 의미는 '곧게 가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게 행하는 복이 바로 〈에쉐르〉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18 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되도다는 동사 〈아솨르〉인데,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게 걸어갈 수 있기에 복된 것입니다.

(3) 〈토브〉라는 복은 번영, 좋은 것 등을 의미합니다. 욥기에는 복이라는 명사가 6번 나오는데 모두가 〈토브〉입니다.

즉 한국적 의미의 복과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것은 그가 가졌던 건강, 가족, 물질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브〉라는 단어로 욥이 잃어버린 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신명기에서만 〈토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현세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곧게 하나님을 따라 가야함을 가르치는 책인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내용은 물론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곧고 바르게 행하면 건강과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는 풍요의 복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쁘라카〉와 〈에쉐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면에 계속〉

〈10면에서 계속〉

복을 한자로 풀이해 보아도 이러한 의미를 보여 준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복자를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福 보일 시 변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밭 전자는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에덴은 울타리가 있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 가운데서 네 개의 강들이 발원하여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밭 田자입니다. 그리고 입 口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 福자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되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명령(즉,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말라는 명령) 아래 있을 때가 진정한 복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쁘라카〉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누리던 아담과 하와의 풍요가 얼마나 멋진 것이었겠습니까 ?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의 개념들을 한 마디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마 6:33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도 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작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토브〉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71).'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바르게 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다만 고난으로 끝나는 슬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그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시 107:22-32)'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1998년 한 해 내내 〈쁘라카〉와 〈에쉐르〉의 복을 구하시다 하나님으로부터〈토브〉의 복도 겸하여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구약성경에서 복을,

빠 락	"무릎 꿇다"는 의미
에쉐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게 행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의미
토 브	"번영""좋은것"을 의미

즉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곧고 바르게 행하면 건강과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량주차 협조 바랍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당부합니다.

1. 교통법규를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지켜주십시오. (정문통과 및 주차시 방향등 표시)
2. 주차시 전면 주차. (잔디 및 수목보호)
3. 동승자 상·하차는 차량의 정체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소에서 상·하차.
4. 도로상 주차시는 기아중립·핸드브레이크 사용금지.

교우 직업별 안내

교우들의 건강과 법률상식 상담을 위하여 의사 및 법조인 교우들을 소개합니다.

성명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성명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황광익	약사	이가약국	423-8307	방동수	〃	내과	403-5746
김인숙	〃		504-5824	차상면	〃	성혀외과의사	420-2262
강유순	〃	고명양국 약사	575-7788	김우경	〃	성형외과	424-4221
정성란	〃		576-6696	민한기	〃	내과의사	416-4337
박정우	〃		601-9908	박혁동	〃	이비인후과	0342-702-9513
안신자	〃		601-9908				
양이신	〃		3452-4112	최인국	〃	평화치과	3319-1089
박인혜	〃	약사	545-8017	김종순	〃	한일병원	404-2386
윤영애	〃	약사	567-3662	진인기	〃	진인기치과	449-1502
김찬숙	의사	청하치과병원장	517-3111	유재학	〃	서울대병원피부과	569-7897
이윤복	〃	수원 성모병원 외과	0331-214-1095				
				이종육	〃	강남성모병원	515-3801
송동빈	〃	인천 길병원	032-817-9184	한주호	〃		574-0490
				최상용	〃	구로고대병원	546-2823
방치웅	〃	방치과의원	504-7251	임현석	〃		514-3316
서경배	〃	서경배재활의학과	0347-791-6643	김영수	〃		514-3751
				백박삼	〃	치과	542-1104
정희철	〃	정희철내과개업	576-6684	채영래	〃	정신과	549-2383
손영익	〃	예인치과의원	587-0714	강신일	법조인	법무사	549-2494
장수재	〃	한의사	585-9707	진만제	〃	국제법률사무소	574-4163
김경빈	〃	인당한의원	582-2861	장현길	〃	한길종합법률사무소	445-4927
우택호	〃	치과병원(남원)	556-6104				
서준규	〃	인하대의대교수	652-1799	이건종	〃	서울지방검찰청검사	792-5439
박종규	〃	산부인과	647-0980				
이종순	〃		823-1189	김완중	〃	변호사	567-4674
김동선	〃	고대구로병원비뇨기과	835-3375	박동영	〃	판사	403-7680
				함귀용	〃	법무부	413-3691
이지화	〃	치과의사	553-4052	임병일	〃	서울지법의정부지원	540-2660
박창근	〃	치과의사	529-7973				
강윤식	〃	내과(대장)	501-9530	황용환	〃		534-5372
이시혁	〃	치과의사	574-1750	김병철	〃	경찰청	592-6909
김유호	〃	내과(심장)	569-8317	서우정	〃	검사	0392-31-3770
김정혜	〃	산부인과의사	564-2197				
신경민	〃	치과의사	406-9305	박영수	〃	검사	537-0301
최희윤	〃	성형외과의사	407-1432	신영무	〃	변호사	568-1343
정해천	〃	내과	403-1758	김영수	〃	변호사	723-2277

〈1면에서 계속〉

우리들은 흔히 말로는"내 탓이오 내 탓이오"하면서도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부인(否認)으로 가짜 허상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린 가짜 나를 자신의 십자가 속에 묻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 보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큰 죄, 마음 속으로는 용서했는데도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어리석은 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주님의 큰 은혜를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분께서 내려 주신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 드리게 됩니다.

이제 무인년(戊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오면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연초 행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한 회개와 함께 재도약을 위한 신년 설계를 하며 마음을 다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들을 일년 내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나라 사정이 어려운 이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가 서로 화합을 다지고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시련이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성실한 일터, 믿고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좀더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기도하여 새 일을 행하며 무인년 한 해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